<보안관 시나리오 : Chapter1>

1. 거친 호흡을 몰아쉬며 입안에 가득 차있던 물을 내뱉는다.
2. 물에 떠밀려 내려오면서 바위에 부딪힌 상처들을 살펴본다.  
   [보안관] 하아… 여긴 어디지…
3.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한발자국씩 내딛는다.
4. 상처에서 피가 흘러 자신의 뒤에 길을 그린다.
5. 피를 따라 돌연변이가 올수 있기 때문에 잎을 따려고 주변을 살펴본다.
6. 지난번 딸의 생일날 선물로 사준 딸의 모자가 눈에 들어온다.
7.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주변을 경계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8. 몇발자국 가니 앞에 한 펜션이 보인다.
9. 그 앞에는 죽어있는 돌연변이 시체가 있다.
10. 순간적으로 펜션 안을 들어가길 망설여하다 시체의 얼굴을 자세히 본다.  
    [보안관] 아니, 이 사람은..?
11. 마음을 다잡고 돌연변이의 품에 있는 총을 획득한다.
12. 펜션을 조심스레 들어가본다.
13. 문을 여자마자 괴성을 지르는 돌연변이를 향해 총을 쏜다.  
    [보안관] (총성 때문에 또다시 몰려오겠군… 시간이 얼마 없다.)
14. 식은땀을 닦으며 집안을 돌아본다.
15. 어떤 한 방에 여행객들의 배낭이 무더기로 모아져 있다.
16. 배낭들을 살펴보니 딸의 가방이 보인다.  
    [보안관] 도대체 어디로 간거니! 아빠가 꼭 데리러 갈게.. 먼저 펜션주인을 찾아야 겠군!
17. 총알과 장총 그리고 간단한 식량을 챙겨 집을 나오려 한다.
18. 보안관의 뒤에있는 창문으로 돌연변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19. 문을 열기전 크게 숨을 들이쉰다.  
    [보안관] 내딸을 찾기 전까지 돌아가지 않겠다.
20. 펜션을 나와 돌연변이들과의 한바탕 전투를 벌인다.
21. 또 돌연변이들의 무기를 찾아 갖는다..
22. 잠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식량을 먹는다.
23. 길바닥에 앉아 길의 끝을 쳐다보는데 무엇인가 모퉁이를 돌아가는 것이 희미하게 보인다.

[보안관]혹시 펜션주인인가…?!!

1. 보안관은 황급히 일어서서 그 뒤를 따라 나선다.
2. 하지만 모퉁이를 돌아서자 놀란 동물(소…?)이 있었고 그옆으로는 누군가 길을 헤집고 지나간 흔적이 있었다.
3. 펜션주인일 것이라고 생각한 보안관은 그 길로 따라가 본다.